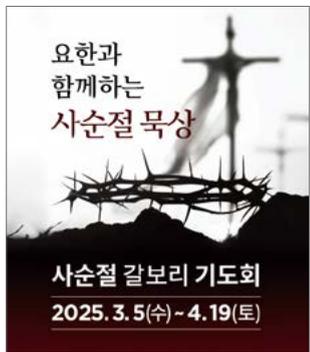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상반기 교육 프로그램 개강

이사야 말씀 배우며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은혜 새겨

생명력이 움트는 봄을 맞아 우리 삶에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트리니티 성서대학원이 개강했다. 3월 4일~5월 27일까지 12주간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와 오후 7시 30분 김정석 감독회장의 강의로 광림교회 본당과 광림남교회, 광림북교회, 동탄광림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번 학기 과목은 지난 학기에 이어 이사야II이며 주제는 <永約之惠(영약지혜), 영원한 언약의 은혜>이다.

이사야 55장 3절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는 말씀으로 성도가 영원한 약속인 은혜로 나아갈 길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

트리니티 강의 전 성도들이 과제물을 제출하면 트리니티 봉사단이 과제물을 채점하고 배

분한다. 트리니티찬양단은 은혜로운 찬양으로 성도들의 마음 문을 열어준다. 말씀 암송도 유익하다. 매 학기마다 많은 성도들이 암송을 지원했고 한 주간 내내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고 마음에 새기며 큰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한다.

트리니티 성경공부 시작 전 오전 10시부터 각 선교구별로 지정된 장소에 모여 속회 지도자 교육을 한다. 트리니티 성서대학원은 일반과정과 통신과정으로 진행되며 통신과정은 광림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참석할 수 있다.

<풍성한 상반기 프로그램>

성도들의 더 깊은 영적 성장을 돕고 다양한 배움의 길로 인도하는 토요일과 주일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프레시온 전도학교

프레시온 전도학교는 광림교회에서 개발한 관계전도 교육과정으로 프레시온은 헬라이어

로 ‘가까운 자를 말하며, 프레시온 전도학교는 이웃에게 진실한 친구가 되어 사랑을 주며 전도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다. 3월 22일~4월 12일까지 4주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김현우 목사의 강의로 두란노강의실에서 진행된다.

평신도지도자 교육 4 Steps 2, 3

평신도 지도자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신앙의 본을 보이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인 리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다.

4 Steps 2, 3는 3월 9일~5월 11일까지 10주간 진행된다. 4 Steps 2는 주일 오전 11시 박범규 목사의 강의로 두란노강의실에서, 4 Steps 3는 주일 오후 1시 30분 박영균 목사의 강의로 나사렛성전에서 진행된다.

새가족과 세례 대상자, 교리를 배우고 싶은 성도들을 위한 교리교육(Step 1 Knowing Jesus)은 3월 2일~4월 6일까지 6주간 매주

일 오전 9시 50분 사회봉사관 5층 세미나 3실에서 이상훈 목사의 강의로 열리고 있다. 영어로 성경을 배우고 싶은 성도를 위한 English Bible Academy는 이선우 권사의 강의로 호세아 말씀을 3월 2일~5월 18일까지 매주일 오후 2시 사회봉사관 3층 제2교육실에서 진행 중이다.

65세 이상 성도들을 위한 광림S.E.C(평생교육대학원)은 3월 6일~5월 29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사회봉사관 5층에서 열리고 있다.

소현수 기자



어둠을 뚫고 나아오라

“간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스 9:12)

오늘의 본문은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외친 메시아의 대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기원전 520~518년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활동했습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은 페르시아의 침공으로 바벨론이 멸망한 후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던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와 해방이 주어졌지만 무기력하고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것과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어둠의 구덩이에 있지 말고 소망의 요새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3:1절 106주년 기념예배로 드립니다. 나라 잃은 아픔을 가슴에 안고 분연히 일어나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의 독립을 외쳤던 우리 조상들의 나라 사랑의 마음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품은 자들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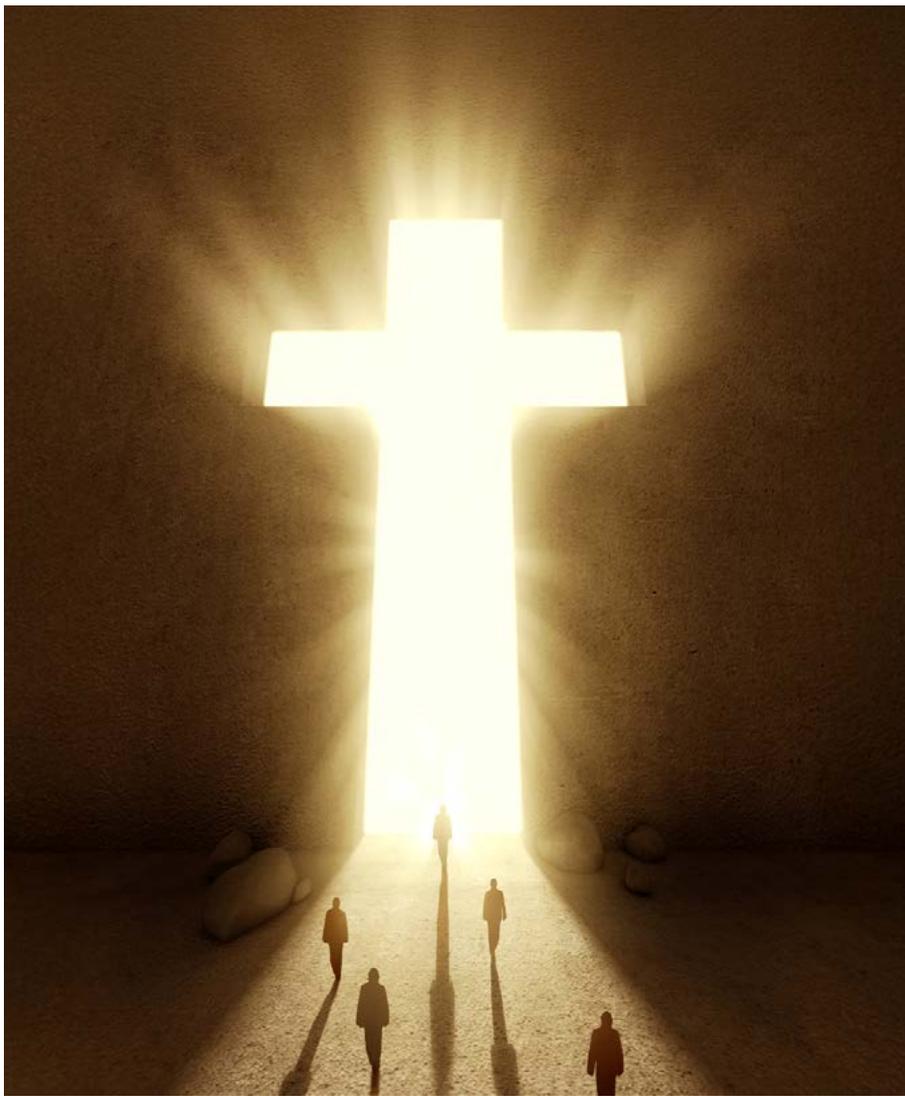
우리 민족이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가 외쳤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나오라' 가운데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지 함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몇 가지로 영적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어둠을 뚫고 나아가야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외쳤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나오라'는 말씀은 다름 아닌 어둠의 세력에서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둠의 세력이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둠으로 몰아가는 세력, 악한 영의 세력 더 나아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죽음의 세력, 이러한 것들로부터 나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바로 이러한 어둠 가운데서 단순히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나오라고 외칩니다. 어둠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기미년 독립 선언문을 보면 우리의 선조들은 음침한 집에서 나오라고 외칩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있고 윽배이고 있던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소망 가운데 분연히 일어나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독립 선언문이 쓰여진 것은 독립 선언서에 서명한 33인 중 16인이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기미년 독립 선언서는 철저하게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만들어진 독립 선언서입니다.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둔 비폭력 무저항의 만세운동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길이 생명을 얻는 길이요, 더 나아가 이 민족이 살길임을 온 백성에게 알리



스가랴 9:7~12
7.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잇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 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론은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8.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학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9. 시온의 딸 아 크게 기뻐할지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10.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테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11.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갠히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12. 간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는 참된 생명의 종교를 보여준 것이 3:1절 만세운동이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소망을 품은 사람이고, 두려움의 구덩이에서 나오는 참된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본문의 스가랴 9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갠히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새로운 존재와 실존의 삶으로 새롭게 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소망의 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사 1:18)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에게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형식과 외모를 바꾼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바뀌어야 합니다.

기미년 독립 선언문을 보면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눈앞에 펼쳐지거나 힘의 시대는 가고 도의의 시대가 오느냐 ... 하늘과 땅에 새 기운이 되 돌아오는 이 마당에 세계의 변하는 물결을 타는 우리는 아무 주저할 것도 없고 아무 거리낄 것도 없도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3:1절 만세운동에 대한 평가가 있지만, 적극적으로는 나라의 독립과 자유를 위한 독립운동이지만 소극적으로는 변화의 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는 새롭게 변화하는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

자가의 길로 향하는 것, 주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능력이 일어 납니다.

셋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으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는 것,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영원을 소유한 사람이 현재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현재로부터의 구원이자 영원을 향한 입구입니다. 영원을 믿는 사람이 오늘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래가 없는 사람은 현재가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귀한 사실을 알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영원한 세계를 지향하는 사람에게는 낙심과 속박이 없고 무한히 자유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 참된 자유함이 있습니다. 3:1절 106주년 기념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쳤던 우리 선조들의 뜨거운 나라 사랑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 소망이 있음을 외쳤던 우리의 선각자들의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과 그 믿음 안에서 소망을 품었던 그들의 뜨거운 믿음,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독회장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감독회장의 설교는 광림교회 홈페이지(www.klmc.church) 및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광림교회 주일설교를 팟캐스트를 통해 청취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학기 광림장학금 수여식

한국교회를 이끌어 갈 제33기 광림장학생 선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마 16:26)는 성경 말씀처럼 광림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갈 미래의 인재들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으며 또 한 번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졌다. 2025년 상반기 광림장학생 선발 축하예배 및 수여식이 지난 3월 2일(주일), 광림교회 본당에서 열렸다. 성적 우수 장학생 21명과 목회자 자녀와 신학생 15명이 선발되어 총 36명의 대학생들에게 6,150만 원의 장학금이 전달되었다.

광림장학위원회 위원장 최동호 장로는 제33기 광림장학생 선발 축하예배에서 장학금을 받는 장학생들이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앞장서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기도했다.

광림장학위원회는 1998년부터 해마다 1학기 와 2학기 두 차례에 걸쳐 신앙생활에 본이 되며 학업과 봉사에 힘쓰는 대학생과 목회자, 선교사 자녀를 선발해 광림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정성이 담긴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성적 우수 장학생은 광림교회 출석 가정의 자녀로 B학점 이상의 성적과 믿음 안에서 교회에 봉사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하고 있다. 목회자, 선교사 자녀 장학금은 비전 교회의 목회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학기당 150~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장학금 재원은 성도들의 <매월 1만 원 장학 현금>, <개인 명의 기념장학금>, <기업 후원 장학금>, <장학위원들 현금>으로 마련된

다. 기념 장학금은 광림의 성도가 지정한 명칭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김덕실, 오옥자, 이주형, 이혜경, 김선옥 기념 장학금과 RMS 기업 장학금이 있다.

김정석 감독회장은 장학금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장학금을 받은 여러분 모두를 축하드립니다. 누군가가 나를 지지하고 격려해준다는 것은 인생에서 무척 큰 힘이 됩니다. 광림교회는 지난 26년간 장학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매년 2회씩 장학금을 전달해, 지금까지 약 900명이 넘는 학생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특히 중국인 선교사 자녀, 에티오피아, 카자흐스탄 외국인 자녀에게도 장학금이 전달되어 기쁩니다”라고 축하를 전하며,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여러분을 격려해 주시는 자리입니다. 부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 받는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라고 했다. 장학금을 받은 한 목회자 자녀는 “장학금을 받게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부르심에 순종하며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장학금 후원 문의 : 박상희 권사
(010-5351-2640)

유병권 기자

포토 뉴스



불학기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개강
3월 4일 ~ 5월 27일, 매주 화요일 11시, 7시 30분에 진행되고 있다.



교회학교 새학기 가족 기도회
새학기를 기도로 준비하는 특별새벽기도회가 열렸다.



삼일절 기념주일
3월 2일 삼일절 기념주일 예배에서 한글 독립선언문 낭독과 애국가 제창이 있었다.

요한과 함께 하는 사순절 묵상

3월 5일(수) ~ 4월 19일(토) 새벽 5시, 6시 본당과 지교회에서 열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요 1:29)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가 3월 5일(수) ~ 4월 19일(토)까지 광림교회 본당과 광림남교회, 광림북교회, 동탄광림교회에서 동시에 열리고 있다. 본당에서는 새벽 5시 벨렐성전에서, 새벽 6시 나사렛성전에서 진행 중이다.

‘사순절’(Lent)은 부활절을 기점으로 역산하여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을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고 경건히 보내고자 하는 절기이다. 사순절에는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이 포

함되어 있다. 4월 13일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다. 고난주간은 종려주일 다음 날부터 부활절 전날인 4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이다. 4월 18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성금요일이며, 4월 20일은 부활절이다.

한편, ‘40’이란 수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받으신 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까지의 40일 등과 같이 성경에 여러 번 고난과 갱신의 상징적 기간으로 등장한다. 이에 고난주간을 포함하여 그리스도께서 죄인 된 우리의 구속을 위해 수난을 당

하신 사건에 대한 구속사적 의의를 살펴보며 자신의 신앙을 재각성하고자 40일간의 절제 기간을 갖는 것이 바로 사순절이다. 사순절은 근신과 금식의 기간이고, 불우한 이웃을 도와주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고난과 죽음으로 향하는 순례의 여정이다.

광림 홈페이지를 통해 더 은혜로운 사순절 기간을 보낼 수 있다. 사순절 배너 광고에서 ‘바로 가기를 클릭하면 실시간 방송 바로 가기, 지난 방송 바로 가기, 핸드북 다운로드를 활용할 수 있다.

핸드북에는 ‘2025 사순절 달력’이 있는데 이 달력에는 40일 동안 매일 읽는 요한복음 요절 말씀과 함께 묵상할 내용이 실려있다. 이 달력에 따라 3월 5일 사순절 첫날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요 1:1~28)로 시작하여 4월 19일 끝날에는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요 20:1~31)로 마무리한다.

이와 같이 사순절 기간에 광림교회 성도들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성경 읽기, 매일 기도와 말씀 묵상의 시간 갖기,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금식하기, 주변에 아픔을 당하는 이웃과 친구 돕기를 실천하며 보내고 있다.

안미영 기자

감독회장 동정



- 2/26 감독회장 정책설명회(서울남연회)
- 2/27 수련목회자 영성수련회
- 3/2 3.1절 기념주일 예배
장학금 수여식
- 3/5 중앙연회 목회자 세미나
- 3/7 블레싱 대한민국 페스티벌
월간회의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church

2025년 광림축구교실 개강

3월 9일 신구초에서 개강예배, 36주간 진행 예정



2025년 광림축구교실이 올해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개강한다.

오는 3월 9일(주일) 오후 1시, 신구초등학교에서 개강예배를 드리며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된다. 총 36주간 진행되며, 8월 방학 기간과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주말마다 운영된다.

광림축구교실은 단순한 스포츠 프로그램이 아니라, 신앙과 체력을 함께 성장시키는 것이 목표다. 축구를 통해 어린이들이 건강한 신체를 가꾸고, 동시에 신앙 안에서 인격적으로도 성숙할 수 있도록 돕는다.

훈련은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마무리하며, 아이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한다.

광림축구교실의 지도자는 모두 전문성을 갖춘 코치들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 축구 선수 출신 지도자, 현역 중·고등학교 감독 및 코치진, 고등학교 체육 교사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진 지도자들이 참여한다.

특히, 광림축구교실 3기, 4기 출신 코치들이 지도자로 함께하며 선배로서 어린 선수들에게 실력뿐만 아니라 스포츠 정신을 가르친다.

지도자 중에는 광림교회학교에서 20년 넘게 교사로 봉사한 감독과 코치도 포함되어 있어 신앙 교육과 인성 함양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축구와 신앙을 함께! 전인적 성장 목표

광림축구교실은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모집하며, 축구를 통해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성장을 동시에 도모한다.

훈련 과정에서는 단순한 경기 운영을 넘어, 협동심과 스포츠맨십을 길러주며, 경쟁보다는 함께 성장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번 여름에는 광림축구교실 여

름캠프가 광림비전랜드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단순한 축구 훈련을 넘어, 축구를 즐기면서 신앙을 더욱 성장시키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림축구교실은 '축구'라는 스포츠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의 장이며,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신앙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이다.

부모님들과 교회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광림축구교실이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김예지·김예찬 남매를 축구교실에 보낸 학부모 김정훈 권사·이영진 집사(6교구)는 "광림축구교실은 단순한 축구 교육이 아니라 신앙과 인성을 함께 성장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아이들이 축구를 통해 체력뿐만 아니라 협동심과 배려심을 배우고 있어 매우 만족합니다"라고 전했다.

문의 : 광림 축구교실 신승욱 총무
(010-3494-3613)

한혜선 기자

[광림교회 장로의 소임을 마치며] 유선례 장로

‘하얀 십자가’를 통해 받은 축복과 사명



부족한 저를 광림교회 장로로 불러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벤에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고 김선도 감독님과 박관순 사모님 그리고 김정석 감독 회장님께도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학교 유아부장으로 부르심을 받고 초

등부 부장과 장로로서 유년부위원장과 사이닝스쿨 그리고 영아부위원장의 소임을 끝으로 장로를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세상이 만족시킬 수 없고 채울 수 없던 공허한 마음으로 교회를 찾을 때 희망의 탑에서 빛나는 하얀 십자가가 제 마음을 하나님 계신 성전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라는 고 김선도 감독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예배를 잘 드리면 인생이 성공하겠구나 하며 예배를 사모했고,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을 깊게 만나게 되면서 제 혼과 영과 육을 새사람으로 지으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자녀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생각하는 재물, 명예, 지식 그 어떤 것보다도 제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싶었고 믿음의 유산과 복음의 가치관을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셨고 믿음 안에서 자라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큰 딸은 사모로, 작은 딸은 문화사역자로 그리고 막내 아들은 목회자로 불러주셔서 믿음의 제사장 가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때 마치 어머니 새가 새끼 새에게 먹이를 주듯이 저는 매 주일 설교와 새벽기도, 수요치유의 신학, 금요은혜의 밤 등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자녀들에게 물어다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앙 교육에 대한 열정을 주셨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사로서의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솔로몬이 경청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말씀을 하나님께 구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간구가 아버지 다윗의 신앙교육에서 비롯된 것처럼 앞으로도 광림교회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세상이 가르치는 성공이나 가치보다는 믿음의 유산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각 분야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구별된 지도자로 세움 받도록 위해서 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자녀도 살고, 가정도 살고, 나라가 사는 길입니다.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교회학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위원장님과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동역했던 부장님과 선생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선례 장로

청년부

베트남 단기선교, 복음의 씨앗을 심다



지난 2월 18일(화)부터 25일(화)까지, LFC 청년선교국은 베트남 광림미션센터와 협력하여 일주일간의 단기선교를 진행했다. 이번 선교는 함께 예배하며 은혜를 나누고, 어린이들과 청년들에게 복음의 기쁨을 전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찬양과 기도, 놀이와 전도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베트남 땅에 깊이 심어졌다.

찬양과 기도로 하나 된 공동체

선교팀은 빈푹성의 교회를 방문하여 청년들과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예배를 통해 하나 되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순간, 국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었다. 선교팀은 그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함께 중보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의 다음 세

대를 강하게 세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했다.

일일 클래스를 통한 새로운 만남

현지에 거주하는 한국 어린이들을 위한 전도 사역도 진행되었다. 요리 클래스, 체육 클래스, 공방 클래스를 운영하며 다양한 활동과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 시간을 통해 처음 교회를 방문한 아이들과 학부모가 있어 더욱 감사한 순간이었다.

성경학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베트남 광림미션센터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성경학교가 열렸다. 말씀과 기도, 레크리에이션, CCD 찬양과 성극 등을 통해 아이들은 하나님을 더욱 친밀하게 알아갔다. 기도할 때 모은 작은 손, 찬양에 맞춰 울동하는

모습, 말씀을 들으며 반짝이던 눈빛은 선교팀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아이들이 앞으로도 신앙 안에서 성장하길 소망하며 모든 일정을 은혜 가운데 마무리했다.

선교, 삶으로 이어지는 사명

이번 베트남 단기선교를 끝으로 LFC 청년선교국은 필리핀, 태국, 베트남까지 총 3개국의 겨울 해외 단기선교를 마쳤다. 하지만 선교는 단순히 한 차례의 일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지속되어야 할 사명임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었다.

베트남 선교팀 주혜진 팀장은 “선교지에서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짐을 경험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 속에

서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셨고, 모든 과정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선교를 마친 지금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반석을 세워가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청년들은 선교지에서 만난 사람들의 미소, 함께했던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선교적 사명을 이어가길 기도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19~20)

황시연 전도사(청년부)

어와나(AWANA) 입단 예배

말씀 암송과 다양한 활동을 하는 교회학교 성경 교육 프로그램



지난 2월 23일(주일) 오후 2시 30분, 취학 아동을 위한 어와나(AWANA) 제14기 입단 예배가 광림교회 교육관 2층 어와나 예배실에서 있었다.

어와나(AWANA)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Approved Workmen Are Not Ashamed)이라는 뜻으로 영어 성경(KJV)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이름으로 성경 암송과 활동을 하는 성경 교육 프로그램이다.

광림교회 어와나는 7~9세를 대상으로 하는 ‘Sparks’(불티), 10~13세를 대상으로 하는 ‘T&T’를 15년째 운영하고 있으며, 4세를 대상으로 하는 ‘Puggles’와 5~6세를 위한

‘Cubbies’도 4년째 진행하고 있다. 어와나는 미국에 본사를 둔 국제적인 개신교 교육 단체로 한국에는 1983년 도입되었으며, 복음 중심, 성경 암송, 재미있고 흥미진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훈련, 견고한 지도력 개발이라는 5가지 사역을 원리로 삼고 있다.

광림교회 취학 어와나 클럽은 주일 2시 30분부터 4시 10분까지 교육관 2층에서, 미취학 어와나 클럽은 사회봉사관 1층 사이닝키즈에서 진행된다.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며 운영되는 어와나는 1년 동안 암송한 말씀을 점검하는 성경 퀴즈 대회, 직접 꾸민 나무 자동차 키트로 트랙에

서 기록을 측정하는 그랑프리 대회, 어와나 올림픽 등도 개최한다.

입단 예배에서 정성민 목사(교육부)는 ‘행복한 어와나(시편 23편)’라는 말씀을 전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나타냈습니다. 양은 약점이 많은 동물로 겁이 많고 시력이 약하며 털이 많고 다리가 굵어 뒤집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지만, 목자가 함께할 때 약점을 극복해 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어와나의 모든 친구가 하나님과 동행하여 행복한 삶을 누리길 소망합니다”라고 했다.

말씀 후 이어진 선서식에서 교사 대표는 어

와나 클럽원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훈련하며 모범이 되는 교사가 되기로, 불티단 학생 대표와 T&T단 학생 대표는 복음 안에서 성실하고 모범적인 클럽원이 되기로 다짐했다.

정성민 목사는 제14기 어와나 클럽원이 된 것을 선포한 후 참석한 모든 클럽원에게 단복을 지급했고 주제가 찬양과 축도 후 예배를 마쳤다.

입단 예배에 참석한 김연경 집사(21교구)는 “어와나에서 아이가 정말 즐겁게 예배를 드립니다. 배운 말씀을 집에서도 암송하는데 예배와 아이의 삶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이 제게도 큰 은혜입니다. 아이가 수년간 어와나에서 다양한 활동 경험을 통해 어떤 일이든 두려움 없이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게 성장했고, 이를 통해 성취감을 얻어내는 모습을 보면 참 감사합니다”라며 어와나 예배의 우수성을 전했다.

미취학 아동을 위한 어와나 입단 예배는 3월 9일(주일) 오후 2시 30분 사회봉사관 1층 사이닝키즈에서 드립니다.

어와나 문의 : 광림교회 교회학교 (02-2015-1178)

박희윤 기자

목회현장

선교사들의 안식처, 아펜젤러 세계선교센터



세계 80여 개 나라에서 활동하는 감리교 선교사는 1,300여 명, 이들 중 고국을 다녀가는 분들은 일 년에 400여 명 됩니다.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고국을 방문하게 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어디서 지낼지를 고민하게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 교단은 선교사를 위한 선교사 게스트하우스를 기획하여 인우학사를

용도 변경하기로 결의하였고 광림교회는 이를 맡아 22억 원을 들여 완전히 리모델링하고 아펜젤러 세계선교센터로 개관하였습니다.

2021년 하반기에 문을 연 아펜젤러 세계선교센터는 올해로 4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센터를 이용하시는 선교사들이 해마다 증가하여 개관한 첫해인 2022년도에는 146가정 227명, 2023년에는 206가정 520명, 작년에는 273가정 686명이 저희 센터를 이용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예약율은 90%를 넘어 6개월 전에 연락을 해야 원하는 날짜에 이용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평균 사용일도 25일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펜젤러 세계선교센터를 방문하는 선교사들 중에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병원을 예약해 놓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열악한 선교환경으로 인해 생긴 병으로 인과, 치과, 암 등이 대표적인 병입니다. 이들은 장기간 머물며 치료받고 완쾌되어 다시 선

교지로 나갑니다. 육체적인 치료는 병원에서 하지만 정신적인 편안함과 안식은 저희 몫으로 생각하고 이를 담당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센터는 선교사들에게 좋은 안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오롯이 선교사와 그 가족을 위해 섬기며 봉사하는 곳이 있어서 편한 마음으로 방문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해외에서 만나는 타 교단 선교사에게도 자신 있게 아펜젤러 세계선교센터를 이야기하고 소개한다고 합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벌써 많은 감리교 선교사들의 안식처요, 고향집과 같이 여러 번 다녀가도 또 오고 싶은 곳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음 놓고 치료 일정대로 방문하는 선교사들도 다수 생겼습니다. 많은 감리교 선교사에게는 고향 집과 같은 편안함과 안식을, 타교단 선교사들에게는 부러움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에게서 공통적으

로 듣는 말은 아펜젤러 세계선교센터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다며 교단과 광림교회에 감사의 인사를 아까지 않습니다.

센터를 개관한 첫해부터 부단히 선교센터를 알리는 홍보에 주력하였다면 이제는 '보다 내실 있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센터'가 되도록 힘을 보태고 이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한번 다녀가는 곳이 아니라 몇 번이라도 이곳을 생각하며 편안한 맘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겸손과 친절로 배려하고 섬기는 자세를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곳을 다녀가는 선교사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안겨주는 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선교사 분들에게에 여러 모양으로 협력해 주시고, 감장감치 등으로 섬겨주신 광림교회 1선교구의 기도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임상권 목사(아펜젤러세계선교센터)

광림남교회

섬김으로 그리스도를 전한 일본 단기선교



광림남교회 청년부는 2월 19일(수)부터 22일(토)까지 일본으로 단기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지난 2월 19일(수) 오전 5시, 11명으로 구성된 선교팀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출발하였습니다.

야마가타 광림미션센터에서 2박 3일간의 주요 사역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로, 수요일 저녁의 밤 집회 인도였습니다. 밤에 눈길을 뚫고 20명이 넘는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선교팀은 인도자(조경필 청년부장)를 중심으로 열정적으로 찬양을 부르며 인도했고, 이어서 선영진 목사가 '일일 온라인 성지순례'를 진행하여 빌라델피아교회에 대해 나누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예배 후, 성도님들과 다과를 나누며 김

과 믹스커피 등 사랑이 담긴 선물을 전했습니다.

둘째로, 보수 사역이었습니다. 남자 청년들을 중심으로 복도 및 천교실의 전구를 LED 등으로 교체하고, 물품이나 서랍장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끝으로, 위로 사역이었습니다. 도산우 선교사님과 함께 성도님들의 가정을 심방하며 광림남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이 담긴 선물을 전해주고, 기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일본에 이민을 오셔서 고초를 겪으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이야기와 교회 사랑에 대해 들으며 은혜를 전하려 간 선교팀이 오히려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오는 시간이었습니다.

21일(금) 오전, 선교팀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야마가타에서 도쿄의 요도바시교회로 이동했습니다. 이때, 일어를 잘 구사하는 유대인 청년 덕분에 3시간이 넘는 장거리를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도쿄 요도바시교회의 미네노 타츠히로 목사님께서 직접 선교팀을 환대해 주시며, 김정석 감독회장님과 광림교회에 세계 선교를 위해 힘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요도바시교회의 일본 청년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본에서 기독교 청년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들을 수 있었고, 서로를 위해 진심 어린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요도바시교회에서의 1박 2일 간의 주요 사역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로, 금요일 저녁의 밤 집회 인도였습니다. 일본 청년들이 찬양을 인도하고, 선교팀의 울림 있는 특송과 탁영인 청년의 간증에 이어 선영진 목사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둘째로, 문화 사역이었습니다. 집회 중, 탁영인 청년이 가야금으로 '하리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등의 곡을 연주하여 일본 성도님들과 청년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끝으로, 버스킹 사역이었습니다. 선교팀은 22일(토) 오전에 교회 앞에서 가야금 연주와 축복송을 부르며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선교팀장으로 섬기고 있는 김준수 청년은 "타국에서 신앙을 지키러 가는 야마가타 광림교회 성도님들의 성숙한 믿음과, 복음의 불모지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예배드리는 요도바시교회의 청년들을 통해 큰 도전을 받았습다"라고 전했고, 김채원 청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구나를 깨닫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감독회장님과 광림남교회 성도님들의 사랑을 선교지에 흘러 보내고자 최선을 다한 이번 선교는 모든 순간이 은혜였습니다. 특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11명의 선교팀원들뿐만 아니라 광림남교회 모든 청년들이 함께하였기에 더욱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선교를 청년부 부흥의 마중물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선교적인 청년부로 세워가시는 출발점으로 삼으시리라 믿습니다.

선영진 목사(광림남교회)

선교 140주년 한국 기독교의 뿌리를 찾아서

광림교회 영어예배부 영성훈련 인천내리교회 탐방



내리교회 들의 흉상

매서웠던 추위의 끝자락인 지난 2월 22일(토)에 광림교회 영어예배부(위원장 김일환 장로) 성도들과 함께 1885년 4월 5일 제물포항에 첫발을 내디딘 아펜젤러 선교사의 선교 여정을 되짚어 보기 위한 첫 번째 일정으로 인천 내리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내리교회 이일곤 기획목사님이 마중해 주셨고, 강함범 장로님이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존스 목사님, 김기범 목사님을 통해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리교회를 통해 인천 강화 지역이 어떻게 복음화되었는지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생면부지(生面不知)의 한국 땅에 말씀을 전하려는 오직 한 가지 사명

을 안고 온 후 인천에서 첫 예배를 드리고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부르며 뿌린 복음의 열매가 현재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헌신하신 숭고한 정신을 항상 기억하고, 저들이 흘리신 피와 땀 위에서 현재의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리교회는 1888년 전도인 노병일에 의해 안골에 6칸 초가집에서 시작되었으며, 1901년 웨슬리 회당을 건축하고 최초의 한국인 목사인 김기범 목사님이 1904년 존스 목사님의 뒤를 이어 부임하면서 1907년 부흥운동을

통해 인천 지역 복음의 중심으로 발전하였습니다.

1902년 하와이 이민의 중심이 되며 하와이 이민자를 위해 홍승하 선교사를 파송하여 믿음으로 이민자를 결속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영화학당을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의 믿음으로 교육하였고 강화 지역에도 교회를 설립하는 등 초기 한국 교회의 중심지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내리교회 견학을 마친 후 자유공원으로 올라가 전망대에서 인천 시내를 둘러본 후 맥아더 동상 앞에 모였습니다. 1950년 동족상잔의 참혹한 내전을 이겨내는 데 결정타였던 인천상륙작전을 진행한 맥아더 장군 동상을 보면서 자유는 거저 얻는 것이 아닌 선혈의 피와 땀으로 쟁취하였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도 거저 얻는 것이 아니라 세상 유혹과의 싸움에서 이겨내야 지킬 수 있다는 진리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차이나타운은 일본이 조선을 장악하기 위해 기간 시설을 건설할 노동자들을 모집하던 시기에 중국인들이 들어와 정착하며 시작된 곳입니다. 그곳에서 가장 오래된 음식점 중 한 곳에서 늦은 식사를 나누며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어예배에 참여하게 된 계기와 성장 과정을 서로 이야기하며 신앙의 뿌리를 찾고 믿음 생활 중 어려웠을 때 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방법 등을 나누면서 귀중한 교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욥 8:7)는 말씀처럼 영어예배부의 믿음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점차 창대해져 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김일환 장로



성경 공부를 돕는 은혜로운 봉사활동

트리니티위원회 위원장 - 정병무 장로



2025년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봄학기가 3월 4일 개강했다. 트리니티는 광림교회에서 1983년에 시작하여 한국교회 내 대표적인 성경공부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고 있다. 광림교회는 매년 봄과 가을 두차례 성경공부를 하고 있다. 트리니티위원회는 강의에 필요한 자료 관리와 과제물에 대한 채점 등 봉사를 하고 있다. 트리니티위원장으로 오랫동안 봉사해 온 정병무 장로를 만났다.

트리니티 봉사는 언제부터 하셨는지요?
1986년부터 2002년까지는 저녁 봉사 활동을 했으며, 2012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는 위원장으로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트리니티위원회에서 하는 주된 봉사활동은?
모든 봉사위원들은 화요일 9시 30분까지 와서 과제물 채점에 대한 교구별 분리 작업으로 시작하여 10시에 개강 첫날은 담당인 권순정 목사님이, 이후에는 담당 전도사님이 예배 인도를 합니다. 예배 후 로비에서 채점된 과제물 배분 및 안내를 합니다. 강의가 끝난 뒤 점심식사 이후 새로 받은 과제물에 대한 채점을 하고 교구별로 분리작업을 한 뒤 오후 3시경 봉사를 마치게 됩니다.

위원장으로 봉사활동에 보람이 있다면?
이른 시간부터 강의에 참석하는 성도들에게 감사하며, 저를 비롯한 위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실 때 보람을 느낍니다. 또한 위원들께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조금도 불평 없이 임해 주심에 감사하며, 위원들 모두 다 더욱 겸손한 자세로 봉사에 임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성경 공부를 다 마치려면 통상 몇 년이 소요되는지요? 또 장로님이 좋아하는 성경 말씀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끝마치는데 대략 15년 정도 소요됩니다. 성경 중에서는 창세기의 내용이 가장 좋는데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통하여 인류가 창조되었으며, 말씀으로 인간을 창조하심과 노아와 아브라함의 신앙의 발결음은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트리니티 참여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점은?

답안지를 제출할 때 교구, 교유번호, 성명

이 바르게 작성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보 누락 시에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어 점수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타인의 과제물을 대신 작성하는 것은 삼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 강의 외에 저녁 시간에도 감독회장님께서 강의를 해 주시는데 적은 인원만 참여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장로님이나 지구장님, 선교회장님, 속장님 등 임원께서는 적극 참여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득섭 기자





한눈에 명화로 보는 구약성경 이야기

8



소돔과 고모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창 18:20~21)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은 재물을 탐내고, 온갖 사악한 범죄를 저질렀으며, 성(性)적인 타락이 극심했다. 그들은 더는 죄악을 용납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향락과 퇴폐에 빠져 살아갔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붉은 태양이 푸른 산등성이 너머로 지는 것을 바라보며 천막 앞에 앉아 있었다. 그는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다. 예전에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 땅에서 자신에게 약속했던 일들이 모두 실현되고 있었다. 아브라함이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낯선 사람 세 명이 나타났다. 먼지투성이인 그들을 본 아브라함은 그들을 안으로 초대하였다. 아내 사라는 서둘러 식사를 준비했고, 식사를 마치자 그들은 그들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느덧 날이 저물어 이들이 길을 나설 채비를 하자 아브라함은 지름길을 가르쳐주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영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던 아브라함은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자녀들에게 차비를 베풀어달라고 부탁하였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께서 타락한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는 사실을 느낀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는 그러겠다고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도 약속할 수 있다고 했다. 만약 소돔과 고모라에 의로운 사람 50명이나 30명, 아니 단 10명만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두 도시를 그대로 놔두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 롯의 집에 인간으

로 변신한 천사들이 방문했다. 밤이 되자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을 에워싸고 두 손님을 내보내라고 요구했다. 그들은 두 손님과 성 관계를 하려는 것이었는데, 동성애를 뜻하는 남색(男色)이라는 말이 여기서 유래되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롯의 답변이 가관이었다. “내게 남자와 잡자리를 하지 않은 딸 둘이 있으니, 내 딸로 대신하라.”

하지만 소돔 사람들은 롯의 말을 무시했고, 이를 보다 못한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해 위기를 넘겼다.

소돔 땅에서 유일한 의인이었던 롯의 일가는 천사의 도움 덕분에 멸망 직전에 도망칠 수 있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도망칠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가 본 소돔 땅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유황불로 온통 불바다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을 어긴 그녀는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렸다.

결국 롯과 그의 두 딸만 무법한 자들의 음란하고 타락한 행실로 물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그러나 롯의 의로움을 생각하면 이후 롯의 이야기는 예상 밖이었다. 소돔에서 탈출한 롯은 소알로 갔다. 롯은 소알에서 살기를 두

▶ **롯과 두 딸** 두 딸에게 유혹을 받는 롯의 모습이다. 소돔에서 탈출하는 롯 일가의 이야기를 묘사했으나, 16세기 후반부터는 두 딸에게 유혹을 받는 롯의 모습이 주로 묘사되었다. 이 작품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루벤스 작품

▲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하나님이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을 벌하는 장면을 묘사한 그림이다. 카를 브롤로프 작품

려워하였고, 두 딸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 인적이 끊어진 동굴에 거주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롯의 두 딸은 아버지의 연세가 많고, 자신들이 결혼할 남자가 없어 일가의 후손을 잇지 못할까 염려했다. 두 딸은 롯에게 술을 주어 취하게 한 후 차례로 동침을 했다. 술에 만취했던 롯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 이로 인해 모압과 암몬 민족이 탄생하게 된다.

* 문의 : 빛의 숲 서점 (02-2056-5771)



※ 게재된 글의 저작권은 출판사 아이템하우스에 있으며 광림뉴스레터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광림 뉴스레터

